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January 2021, 1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양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는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 대화편

CONVERSATIONS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기술(art)도 과학(science)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오직 마음(heart)을 그분께 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나(resolutely determined) 혹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 첫 번째 대화

FIRST CONVERSATION

### 수도원에 입문하기까지

내가 로렌스 형제를 처음 만난 것은 1666년 8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그가 아직 세속에 있던 열여덟 살 때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singular favour)를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해 겨울,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그는 얼마 후면 나뭇잎들이 새로 돌아날 것임을, 또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힐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Providence)와 권능(Power)에 대한 강한 비전(vision)에 압도되었고, 그것은 이후로도 결코 마음(soul)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그를 완전히 세상에서 떼어내어(loose),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40년이 넘게 살아오는 동안 점점 더 커져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이었지요.

그는 회계 출납을 맡은 ‘드 피에베르(D Fieubert)’ 씨의 심부름꾼(fooorman)이었는데, 실수만 일삼는 아주 어리석은 미련통이(awkward fellow)였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원(monastery)에 들어가겠노라 요청했던 것도 매사에 서툴고



실수투성이인 그가 거기서 좀더 빈틈없는 사람이 되어 더 큰 기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sacrifice)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하셨으니, 거기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상태 그대로 만족(satisfaction)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 믿음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운데(in a sense of GOD's Presence)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하며, 하찮고(trifles) 어리석은 것들(fooleries)을 생각하는 나머지 그분과 대화(conversation)를 단절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분께 헌신하는 가운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믿음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대신, 매일 변하는 혼한 기도(devotions)로 시간을 때운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길(the way of Faith)을 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정신(the spirit of the Church)이며, 완전한 높은 경지(a high degree of perfection)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일, 영적인(temporal and spiritual) 일 모두에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분께서 우리를 고통(suffering) 가운데 이끄시든 혹은 위로(console)로 이끄시든, 오직 그분의 뜻(His will)을 이루는데 만족(satisfaction)을 찾으라고 그는 말

했지요.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영혼(a soul truly resigned)에겐 다 마찬가지로(equal)이기 때문이라고요. 메마른 사람들, 감동도 없고 지루한 기도를 일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심(fidelity)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선하고 충분한 행위(good and effectual acts)로 순종(resignation)을 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은 종종 우리의 영적 성장(spiritual advancement)을 크게 고취시켜 주실 거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매일 듣게 되는 비참한 일들과 죄에 있어,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이 품은 악의를 고려한다면,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의아해했지요. 그의 입장에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못된 짓들(mischiefs)을 치유하실(remedy) 걸 알기에 그는 기뻐했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기 포기(resignation)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 사이에 혼재한 모든 열정들(all the passions)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는 이들에겐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밝히 빛을 비춰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곧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아무 걱정 말고 원할 때마다 그(로렌스 형제)를 찾아와도 좋으나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01

January 금 Fri

###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①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2장

③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④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0

내지샘플

⑤ **묵상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  
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  
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  
한다.

② 잠언 2:1-12

⑥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온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에서 내심이니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 Proverbs 2:1-12

<sup>1</sup>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sup>2</sup>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sup>3</sup>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sup>4</sup>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sup>5</sup>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sup>6</sup>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sup>7</sup>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sup>8</sup>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sup>9</sup>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sup>10</sup>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sup>11</sup>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sup>12</sup>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 7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 8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분합니다.

2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원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가리자만인연합교회, 관천제(AI)  
기쁨의 교회, 정운석(AI)  
한인총회, 한민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의 값',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  
늘 '강'에 말함 '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지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  
요.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  
견하였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3-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  
는 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마 7:11).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하고 보  
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  
보면 의외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  
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화처럼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쳐서  
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하고 찾  
고 결국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자(6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으십시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tly containing cer  
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箴言, JiamE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  
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  
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  
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순기도 One Prayer ☐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6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 문제없다

###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http://www.facebook.com/kumcdevotion)



# 01

[illegible]12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잠언 Proverbs 1-2장 □	2 잠언 Proverbs 3-4장 □
6 잠언 Proverbs 9-10장 □	7 잠언 Proverbs 11-12장 □	8 잠언 Proverbs 13-14장 □	9 잠언 Proverbs 15-16장 □
13 잠언 Proverbs 21-22장 □	14 잠언 Proverbs 23-24장 □	15 잠언 Proverbs 25-26장 □	16 잠언 Proverbs 27-28장 □
20 전도서 Ecclesiastes 1-2장 □	21 전도서 Ecclesiastes 3-4장 □	22 전도서 Ecclesiastes 5-6장 □	23 전도서 Ecclesiastes 7-8장 □
27 아가 Song of Songs 1-2장 □	28 아가 Song of Songs 2-3장 □	29 아가 Song of Songs 3-4장 □	30 아가 Song of Songs 5-6장 □
		12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2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잠언

잠언은 욱기, 전도서와 함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문학 중 하나입니다. 지혜문학에 속한 책들은 성격상 교훈적이고 사색적인 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예외가 아니어서 읽다 보면 마치 인생 경험이 많은 부모가 이제 막 세상 살이를 시작한 자녀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차근차근히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잠언 1:1절은 잠언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잠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사람이 지은 격언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중에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것이겠지요. 특히 마지막 두 장 30장과 31장에는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잠언으로 편집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주전 6세기 경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지혜 문학에 속한 책들과 마찬가지로 잠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언급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사건, 가나안 땅 정착,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들 이야기까지 잠언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들에 대해 인색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잠언은 20세기 후반까지 성서학자들로부터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잠언 전체에 걸쳐 10회 이상 반복되는 이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사회적 통념(conversional wisdom)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piety)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시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계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지금, 그 막대한 정보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묻게 됩니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귀한 책입니다.

잠언의 일반적인 개요(Outline)는 다음과 같습니다. (Paul J. Achtemeier ed., The Harper Collins Bible Dictionary Revised ed.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96. P 890)

- I. 1:1-9:18 지혜시들
- II. 10:1-22:16 지혜격언들
- III. 22:17-24:22 책망들
- IV. 25:1-29:7 솔로몬의 잠언
- V. 30:1-33 아굴의 잠언
- VI. 31:1-9 르무엘왕의 잠언
- VII. 31:10-31 현숙한 아내에 대한 시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전도서와 아가

## 전도서

### 전도서라는 이름의 유래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인데, 보통 '전도자의 말씀'이란 뜻의 '디브레 코헬레트'로 불립니다. '코헬레트'는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즉 진리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무리를 모으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나 존재의 의미 등에 대해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헬레트는 '전도자' 또는 '설교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NRSV는 이 단어를 스승(Teacher)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의 제목인 '에클레시아테스' 역시 '회중의 소집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글 성서의 '전도서'라는 제목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전도서의 성격과 주제

전도서의 핵심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되며, 본문 곳곳에서 ‘헛되도다’라는 말이 반복되기에 자칫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 아래서’, 즉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전도서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밝혀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헛된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허무주의적인 요소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무의미한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하는 일이 헛된 일일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추구하는 일들은 여전히 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 즉 ‘해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 아래 있는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해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전도서의 저자와 기록 시기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는 저자의 행적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유대인 학자들과 기독교 신학자들 다수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록 시기 역시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마무리된 기원전 935년 경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아람어나 바사어 등이 많이 섞여 있어 익명의 지혜자가 저자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기록 시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 전승되던 내용들이 기원전 3세기 경 편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전도서의구성

12장으로 이뤄진 전도서의 전반부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장에서는 전도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지혜와 쾌락, 재물 등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명언들이 소개되고 있는 3-6장에서는 인생의 수고는 물론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저자의 생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충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7-9장에서는 알 수 없는 주의 섭리와 지혜의 참된 가치, 현재에 충실하라는 실질적인 충고가 이어지고, 10-12장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아가

### 아가의특징

아가의 히브리어 이름은 1장 1절의 '쉬르 하쉬람' 즉 '노래들 주의 노래'라는 명사에서 비롯됐습니다. 희랍어로 번역된 칠십인역 성서나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잇 성서의 이름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번역본인 흠정역 성서에서 아가는 저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며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로 불립니다.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시이지만,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 희생과 헌신을 노래하는 사랑의 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비록 아가는 에스터와 함께 본문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유법에 걸맞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 아가의 저자와 기록 시기

일반적으로 아가의 저자는 솔로몬이며 기록 시기 역시 그가 다스리던 때인 기원전 965년 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본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낱말과 이상한 낱말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히브리어 문법이나 용례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가가 고대 중동지방에서 흩어져 전승되던 시들을 후대에 취합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자와 기록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 아가의 주제

아가의 핵심어는 '사랑'과 '결혼'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특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가가 전하는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온전한 사랑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참조문헌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 (성서연구사)

김영진외,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해설성경 (대한기독교서회)

# 01

January 금 Fri

##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2장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한다.

### 잠언 2:1-12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 Proverbs 2:1-12

**1**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2**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3**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8**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9**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11**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와 같다', '비유'로 번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패턴들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바늘 '짐'에 말씀 '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이란 뜻이지요.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삶을 깊이 관찰하면서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아이들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듯이 말씀합니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3-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 7:11).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하고 보화를 찾듯이 찾으려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의외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보화처럼 여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하고 찾고 결국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6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뜸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_\_\_ is the same as." It is translated as "pa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ctl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箴言 JamE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wis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wisd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2

January 토 Sat

## 나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지녔는가?

Do I have traits of  
the wise?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3-4장



새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여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지혜를 얻으라고 권고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다.

### 잠언 3:1-12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 Reading insight

Solomon admonished us to trust in the Lord with all our heart, to acknowledge Him in all our ways, to receive His guidance, and to gain wisdom. He then listed traits of the wise.

## Proverbs 3:1–12

**1** My son, do not forget my teaching, but let your heart keep my commandments,

**2** for length of days and years of life and peace they will add to you.

**3** Let not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forsake you; bind them around your neck;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4** So you will find favor and good success in the sight of God and man.

**5**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6**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7** Be not wise in your own eyes; fear the LORD, and turn away from evil.

**8** It will be healing to your flesh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9**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and with the firstfruits of all your produce;

**10** then your barns will be filled with plenty, and your vats will be bursting with wine.

**11** My son, do not despise the LORD's discipline or be weary of his reproof,

**12** for the LORD reproves him whom he loves,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5-7절)

What is the most important trait of the wise? (3:5-7)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1-12절)

What does the Lord do to give wisdom to those whom He loves? (3:11-12)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접합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새해에는 지혜로운 자의 5가지 특징을 지켜봅시다

Let us try to keep 5 traits of the wise in the New Year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특징들을 지녔을까요?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운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v.5).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 몸의 중심을 그분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재물이나 직업이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구합니다(v.6). 여기서 강조점은 “범사”에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와 인종과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v.7). 넷째, 지혜로운 자는 재물에 관대한(generous) 자입니다(v.9).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혜로운 자는 실패와 실수라는 고난을 통해 배우는 자입니다(vv.11-12). 지혜로운 자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미워합니다. 아치볼드 매클리시(Archibald MacLeish)라는 시인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아픔보다 더 진한 아픔이 있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아픔이다”라고 했습니다.

What traits do the wise have? Chapter 3 allows us to compare how close we are to the wise. First, the wise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3:5) To trust someone means to shift our entire center of gravity to him. Indeed, we sometimes place more of our trust in material things, a job, or a person rather than God. Second, the wise acknowledge God in all their ways and receive His guidance. (3:6) Here the emphasis is placed on “all their ways.” Whether large or small, in ALL our ways, we must not lean on our own understanding.

Third, the wise always maintain a desire to learn. They are ready to listen to the advice of others regardless of their age, race, or social status. The unwise, however, consider themselves wise in their own eyes. (3:7) Fourth, the wise are generous with their wealth. (3:9) Not only do they honor the Lord with the first fruits of all their crops, but they also do it with joy and experience God’s abundant grace and blessings. The last and fifth trait is that the wise learn through failures and mistakes. (3:11-12) Even the wise may fall or fail but they grow and become mature through the pain of that fall or failure. Therefore, they accept the discipline of the Lord with gratitude. On the other hand, a fool detests discipline. The poet Archibald MacLeish said, “There is a stronger pain than the one learned from experience, it is the pain of not learning through experienc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3

##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말씀 안에서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정영희 목사(드림교회, CA)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것이 “복(福)”이었습니다. 동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셨고(창세기 1:22), 사람들은 이에 더하여,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창세기 1:28) 에덴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בָּרַךְ - to bless, kneel, kneeling -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라 표기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기에 인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 원리를 통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관점에서 한자의 복(福)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福)” = “禾(벼 화)” + “一(한 일)” + “口(입 구)” + “田(밭 전)”입니다. 앞에 나오는 “示”라는 글자가 “보일 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일 “시”자라기보다는 “벼 화(禾)”의 씨를 바로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럴 경우 복(福)은 “한 사람의 입을 충



분히 채워줄 수 있는 밭에서 나는 곡식-쌀(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매일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이러한 “복사상”은 구약은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이중적 저주”를 받습니다. 즉, 저주받은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주가 겹친 것입니다. 이 저주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려는 노력 속에서, 폭력과 착취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되고, 살인을 낳습니다.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惡循環)을 선순환(善循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원리를 거스르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원리대로 살면, 복(福)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2-6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04

January 월 Mon

## 나에게 주신 샘물을 지키는 지혜

Wisdom to keep  
the spring water  
given to me.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5-6장



새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5장은 부부를 위한 지혜의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복된 샘물로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는 달콤해 보이지만 실은 썩과 같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음녀(낯선 자, 모르는 자)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친다.

### 잠언 5:1-8, 15-19

- 1 내 아들이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 2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 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 4 나중은 썩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 5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 6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 7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 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 1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 16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 17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 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 19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 Reading insight

Chapter 5 is a source of wisdom for married couples. We should consider our spouse as blessed well water and to keep and protect them. We should be wise and avoid the adulteress (strangers, unknowns) who may look sweet but lead us to the way of death like bitter gall.

## Proverbs 5:1–8, 15–19

**1** My son, be attentive to my wisdom; incline your ear to my understanding,

**2** that you may keep discretion, and your lips may guard knowledge.

**3** For the lips of a forbidden woman drip honey, and her speech is smoother than oil,

**4** but in the end she is bitter as wormwood, sharp as a two-edged sword.

**5** Her feet go down to death; her steps follow the path to Sheol;

**6** she does not ponder the path of life; her ways wander, and she does not know it.

**7** And now, O sons, listen to me, and do not depart from the words of my mouth.

**8** Keep your way far from her, and do not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15** Drink water from your own cistern, flowing water from your own well.

**16** Should your springs be scattered abroad, streams of water in the streets?

**17** Let them be for yourself alone, and not for strangers with you.

**18** Let your fountain be blessed, and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19** a lovely deer, a graceful doe. Let her breasts fill you at all times with delight; be intoxicated always in her lov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음행하는 여자(음녀)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3–5절)

What are the traits of the adulteress? (5:3–5)

음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 일어날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9–12절)

What will happen to us when we do not heed the warnings against the adulteress? (5:9–12)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목(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성스러운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We need the wisdom to preserve the sacred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wife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 어느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 대학의 성장을 위해 많은 모금과 후원을 이끌어냈지만, 그 스캔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의 업적과 명성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5장은 유독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음녀”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3절). 음녀를 뜻하는 히브리어 “zarah”의 문자적 의미는 a stranger 낯선 자, an unknown 모르는 자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낯선, 모르는 자와의 성적 관계는 죽을 곳으로 인도하며 심지어 지옥으로 인도합니다(5절).

그 관계가 처음에는 꿀과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습니다(4절). 5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복된 샘물로 비유하며 그 샘물을 소중히 여기고(15절) 그 물줄기를 거리로 보내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권면합니다(16-17절). 나에게 주신 복된 샘물을 지키는 지혜 중에 하나는 음녀, 즉 낯선 이, 모르는 이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8절). 신실한 요셉조차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자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에 가지 말아라”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샘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벗어 나는 순간 죽는 것처럼, 우리를 ‘제약’하는 듯한 하나님의 지혜는 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Last fall, the president of a well-known Christian seminary university resigned because his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his secretary was exposed. He was a fundraiser and solicitor of support for the university and contributed a great deal to the growth of the university but the sex scandal destroyed his legacy and reputation overnight. Chapter 5 warns to watch out for the “adulteress” that destroys the relationship of a married couple. (5:3) The Hebrew word for adulteress is “zarah” and it means “stranger” or “unknown”. Sexual relationships with strangers lead to death and to the grave. (5:5)

Such a relationship feels like honey in the beginning but ultimately will turn bitter as gall and sharp as a double-edged sword. (5:4) Chapter 5 compares a spouse to a well spring and admonishes us to treat our spouse as a treasure. (5:15) We are to prevent the well spring from overflowing in the streets and to let it be ours alone. (5:16-17) One wisdom shared on how to safeguard the well spring is to avoid the adulteress, that is, the stranger and keep far away from them. (5:8) Even the upright Joseph had to run away from the wife of Potiphar to overcome the temptation. “Do not do \_\_\_\_.” “Do not go \_\_\_\_.” They sound like restrictions on our freedom. Fish will die if they escape from water because they do not like water. Similarly, the wisdom of God may appear to be “restrictions” for us but actually it is the Word of life for our “freedom”.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5

January 화 Tue

##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wisdom of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7-8장



새201장(통240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8장에서 지혜는 의인화되어 대명사로, 인격으로, 창세 전에 있었던 존재로 표현된다. 그 지혜를 듣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으며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 잠언 8:1-8, 32-36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3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6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굋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32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 Reading insight

In Chapter 8 the anthropomorphism of wisdom is expressed as a pronoun, a person, and an existence prior to creation. Those who listen to wisdom will be blessed and will receive life and favor from the Lord.

## Proverbs 8:1–8, 32–36

**1** Does not wisdom call? Does not understanding raise her voice?

**2** On the heights beside the way, at the crossroads she takes her stand;

**3** beside the gates in front of the town, at the entrance of the portals she cries aloud:

**4** “To you, O men, I call, and my cry is to the children of man.

**5** O simple ones, learn prudence; O fools, learn sense.

**6** Hear, for I will speak noble things, and from my lips will come what is right,

**7** for my mouth will utter truth; wickedness is an abomination to my lips.

**8** All the words of my mouth are righteous; there is nothing twisted or crooked in them.

**32** “And now, O sons, listen to me: blessed are those who keep my ways.

**33** Hear instruction and be wise, and do not neglect it.

**34** Blessed is the one who listens to me, watching daily at my gates, waiting beside my doors.

**35** For whoever finds me finds life and obtains favor from the LORD,

**36** but he who fails to find me injures himself; all who hate me love dea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4절의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4절)

In Proverbs 8:4 who is “I” referring to?

‘나’는 누구이며 그를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35절)

Who is “I” and what is the blessing given to the person who gains “I”? (8:35)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지혜이신 그 분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When you gain the Lord who is wisdom, you gain everything

잠언에서 8장은 매우 독특하게도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4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7절). 자신에게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으며 부귀와 재물이 있습니다(14, 18절). 놀랍게도 자신은 영원 전에 이미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23절). 태초부터 계셨고 땅이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히 1:2-3).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고전 1:24). 그렇기에 예수를 얻으면 지혜도, 생명도,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35절). 그분 안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의 경계가 정해지고 땅의 기초는 지혜이신 주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29절). 지혜는 일상생활의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만큼 지혜는 성장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대상을 주님보다 더 신뢰할만한 지혜와 자원의 원천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In Chapter 8, wisdom is quite uniquely anthropomorphized as a person. “To you, O men, I call out: I raise my voice to all mankind.” (8:4) “My mouth speaks what is true, for my lips detest wickedness.” (8:7) Surprisingly, he said, “I was appointed from eternity.” (8:23) The one who existed from eternity and before the earth was formed is Jesus Christ. (Heb 1:2-3)

Apostle Paul called Jesu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Cor 1:24) Therefore when you receive Jesus, you gain wisdom, life, and everything. (8:35) In Him, all resources that we need in our life are contained. The boundaries of the sea an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were set by the Lord who is wisdom. Wisdom is an insight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principles and reasonings of daily life. Therefore, our wisdom grows as we come nearer to the Lord and love Him and obey His commands. Let us reflect on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Whereas we claim that we love the Lord (rather than meditate on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His word and obey His word), do we not treat other objects as the source of wisdom and resources as if they are more trustworthy than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6

January 수 Wed

##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주장

The claims of  
the mocker and  
the si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9-10장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9장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의 특징을 대비시키면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이 돌이켜서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을 주시는 여호와, 거룩하신 자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한다.

### 잠언 9:7-18

**7**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12**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13**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 Reading insight

Chapter 9 compares the traits of the wise, the simple, and the mocker and further admonishes the simple and the mocker to come back to the Holy Lord who is the source of wisdom and understanding.

## Proverbs 9:7-18

**7** Whoever corrects a scoffer gets himself abuse, and he who reproves a wicked man incurs injury.

**8** Do not reprove a scoffer, or he will hate you; reprove a wise man, and he will love you.

**9** Give instruction to a wise man, and he will be still wiser; teach a righteous man, and he will increase in learning.

**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insight.

**11** For by me your days will be multiplied, and years will be added to your life.

**12** If you are wise, you are wise for yourself; if you scoff, you alone will bear it.

**13** The woman Folly is loud; she is seductive and knows nothing.

**14** She sits at the door of her house; she takes a seat on the highest places of the town,

**15** calling to those who pass by, who are going straight on their way,

**16** “Whoever is simple, let him turn in here!” And to him who lacks sense she says,

**17** “Stolen water is sweet, and bread eaten in secret is pleasant.”

**18** But he does not know that the dead are there, that her guests are in the depths of Sheol.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7-8절)

Why should the mocker not be rebuked? (9:7-8)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Why should a wise man be instructed? (9:9)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이리로 돌아키라!

Turn this way!

예전에 저는 스스로를 무신론에 가까운 이신론(신은 존재하지만 현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론) 자라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으며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종 차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종 차별은 악입니까?”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인종 차별은 악이며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며 미국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할 죄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민자로서 당했던 인종 차별의 사례들을 밝히며 그때의 사건이 떠올랐는지 다소 흥분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금 절대적인 선과 진리가 없고 도덕적 판단은 모두 상대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인종차별이 죄라는 도덕적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가 다소 당황하는 가운데 장황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이 모순됨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의 논리와 신념 중에는 어디선가 빌려온,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미련한 여인이 “도둑질한 물”(17절)와 같은 진리의 단편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나 신의 역사는 부정하면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움은 주장하고 싶었던 그의 논지는 실상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과 진리를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9장은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거룩하신 자’에게로 돌아키라고 초청합니다.

Some time ago, I had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who claimed to be a ditheist (a theology that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two equally powerful gods, one good and one bad which was close to an atheist). He asserted that there was no absolute good and evil, and because truth is relative, we should not talk about what was right or wrong to anybody. Then the subject of discrimination came up. “Is discrimination an evil?” To this, he answered, “Discrimination is evil, it should absolutely not be allowed, and it is a sin that should be uprooted in all societies in the USA.”

As he revealed several cases of discrimination that he had personally experienced as an immigrant, he was upset as his personal bad memories came back to haunt him. I asked him again. “I see what happened to you. I fully share the feelings because I myself had similar experiences. But just now, you said that there was no absolute goodness and truth and all moral judgments are relative, didn't you? But then where did the moral standard, claiming that discrimination is a sin, come from?” He seemed to be a bit embarrassed and continued with a tirade of explanations. But he seemed to have realized his own contradiction in the midst of his gibberish claims.

In the midst of his own logic and belief was hidden a piece of truth borrowed from somewhere like the expression in today's scripture, “stolen water of the foolish woman.” (9:17) As he denied the existence of God and the history of God, he wished to assert his own logic of political and moral righteousness. But his logic could not be explained without recognizing the absolute goodness and truth of God. Chapter 9 invites the simple to come and turn to the “Holy On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7

January 목 Thu

## 겉과 속이 동일한 성실한 자입니까?

Is he a man of  
integrity, a man  
who is the same  
inside and outside?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1-12장



새465장(통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1장은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의 특징을 대비시키고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이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며, 12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되 특별히 입술과 언어로 드러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잠언 11:1-11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7**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 의인이 행동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 Reading insight

Chapter 11 compares the traits of the upright and the dishonest, shows the result, and warns that duplicity of two-faced people will ultimately lead to destruction. Chapter 12 compares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nd especially shows the traits revealed through lips and words.

## Proverbs 11:1-11

**1** A false balance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but a just weight is his delight.

**2** When pride comes, then comes disgrace, but with the humble is wisdom.

**3** The integrity of the upright guides them, but the crookedness of the treacherous destroys them.

**4** Riches do not profit in the day of wrath, but righteousness delivers from death.

**5** The righteousness of the blameless keeps his way straight, but the wicked falls by his own wickedness.

**6** The righteousness of the upright delivers them, but the treacherous are taken captive by their lust.

**7** When the wicked dies, his hope will perish, and the expectation of wealth perishes too.

**8** The righteous is delivered from trouble, and the wicked walks into it instead.

**9** With his mouth the godless man would destroy his neighbor, but by knowledge the righteous are delivered.

**10** When it goes well with the righteous, the city rejoices, and when the wicked perish there are shouts of gladness.

**11** By the blessing of the upright a city is exalted, but by the mouth of the wicked it is overthrow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3, 6절)

What are the promises given to the upright? (11:3, 6)

속이는 저울(1절)을 쓰는 패역한 자(사기꾼)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3, 6절)

What is the destiny of the wicked who use dishonest scales? (11:3, 6)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Green washing, Gospel washing?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라는 암벽 등반가는 친환경주의 회사 P를 설립하여 성공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친환경을 추구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흥미롭게도 그가 세운 회사는 그 모순을 극복하고 친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겉으로는 친환경, 녹색 경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Green washing”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업들은 마치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이 등장하는데 Green washing은 현대판 속이는 저울이지요. 그리고 11장에는 “정직”, “성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3, 6, 11절). 3절의 ‘성실’은 integrity, 즉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하나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목사에게 적용하면, 강단에서의 말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같다는 뜻이고, 성도에게 적용하면, 주일 예배에서의 경건한 모습과 주중 비즈니스를 할 때의 모습이 속이는 저울을 쓰지 않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여 하나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Green washing이라는 단어를 보며 Gospel washing을 떠올려 봅시다. 복음을 표방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바른길로 인도합니다(3절). 그 자가 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Yvon Chouinard was a rock climber, founded a unique eco friendly company Patagonia, and has become quite successful. Eco friendly companies rarely succeed in a capitalistic society where pursuit of profit is the top priority. Interestingly, Patagonia has overcome traditional wisdom by combining an eco friendly operation with business profitability. However certain corporations preach eco friendly operations and green management on the surface but do not practice either. This is called “green washing”. They advertise as if they care about the environment, but they run their corporations in the direction of environment destruction.

Proverbs 11:1 references “dishonest scales.” Green washing is the present-day version of dishonest scales. In Chapter 11, the words “upright” and “integrity” appear many times. (11:3, 6, 11) The word “integrity” in Proverbs 11:3 means that the inside and the outside are the same and the word and the deed are the same. Applied to pastors, their words from the pulpit and deeds in their life should be the same. Applied to lay people, sincere images at Sunday worship service and daily practice at the workplace, such as not using dishonest scales but using correct weights are the same. In contrast to green washing, the expression Gospel washing pops up. We preach the Gospel but do not practice what we preach, do we? The integrity of the upright guides them. (11:3) Such a person is wise.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8

January 금 Fri

##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은

The secret  
to calm unrest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3-14장



새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3장에서 지혜로운 아들로 상징되는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행하며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자이기에 존영을 누린다. 14장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상징되는 슬기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온한 마음을 누린다.

### 잠언 14:26-35

**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붙잡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2**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 Reading insight

In Chapter 13, the righteous is symbolized as a wise son who enjoys good things because they detest lies, act honestly, and seek wisdom with humility. In Chapter 14, the wise is symbolized as a wise woman who enjoys peaceful minds because they set their house upright, fear the Lord, and overcome fears coming from the world.

## Proverbs 14:26–35

**26** In the fear of the LORD one has strong confidence, and his children will have a refuge.

**27** The fear of the LORD is a fountain of life, that one may turn away from the snares of death.

**28** In a multitude of people is the glory of a king, but without people a prince is ruined.

**29** Whoever is slow to anger has great understanding, but he who has a hasty temper exalts folly.

**30** A tranquil heart gives life to the flesh, but envy makes the bones rot.

**31** Whoever oppresses a poor man insults his Maker, but he who is generous to the needy honors him.

**32** The wicked is overthrown through his evildoing, but the righteous finds refuge in his death.

**33** Wisdom rests in the heart of a man of understanding, but it makes itself known even in the midst of fools.

**34** Righteousness exalts a nation, but sin is a reproach to any people.

**35** A servant who deals wisely has the king's favor, but his wrath falls on one who acts shamefull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26절)

What are the promises to those who fear the Lord? (14:26)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

How do we turn from the snares of death? (14:27)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The Fear to overcome the fear

두려운 마음은 사람에게 불안을 일으켜 그로부터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2020년을 장악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많은 이들의 평강을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기저 질환이 있는 분이나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두려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팬데믹이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나 16세기의 천연두는 여전히 전염병 역사에 1, 2위를 기록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삶이란 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모든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상 우리가 오늘 살아 있다는 자체가 기적일 정도입니다. 14장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견고한 산성”(v.26)이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v.27)이 있으며, 평온한 마음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 비결은 놀랍게도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다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26, 27, 30절). 애굽의 바로 왕의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 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A fearful mind engenders anxiety in people and deprives them of peace. 2020 was overwhelmed by COVID-19. The virus caused great fear among people and threatened the peace and comfort of many people. COVID-19 had lethal effects on people with underlying conditions and the elderly so the fear of infection was much greater to the people in those categories. As a matter of fact, if we look back at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the pandemic is not without precedence. The pestilence in the 14th century and tuberculosis in the 16th century were ranked number 1 and 2 in the annals of epidemic history and were major calamities beyond the scope of COVID-19.

Danger always lurks. We do not notice the many dangerous elements in life, but it is almost a miracle that we exist in this world. Chapter 14 assures that “there is a secure fortress” for someone (14:26), there is a way to turn a man from the snares of death (14:27), and there is a secret to have a heart at peace. How is it possible to enjoy such peace and comfort in the middle of a dangerous and fearful world? Surprisingly, the secret is “fear”. Fear of the Lord. When we fear the Lord, we will spurn worldly fear. (14:26, 27, 30) The reason why the midwives let the Hebrew boys live in defiance of orders from the king of Egypt was because their fear of the Lord overcame their fear of Pharaoh. Our current generation is full of worldly fears. What we really need is true fear of the Lord and trust in the Lor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09

January 토 Sat

##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The Lord who  
guides our path

통독본문 Reading Plan

잠언 Proverbs 15-16장



새401장(통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6장은 사람의 계획과 경영이 있을지라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통해 교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를 범치 말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라고 권고한다.

### 잠언 16:1-9, 18-20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20**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만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 Reading insight

Though we make plans, the truth is that God is in control. Chapter 16 admonishes us to be guided by the Lord by seeking His wisdom with humility and lowly minds and not to commit foolish acts of arrogance by not trusting Him.

## Proverbs 16:1–9, 18–20

**1** The plans of the heart belong to man, but the answer of the tongue is from the LORD.

**2** All the ways of a man are pure in his own eyes, but the LORD weighs the spirit.

**3** Commit your work to the LORD, and your plans will be established.

**4**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purpose, even the wicked for the day of trouble.

**5** Everyone who is arrogant in heart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be assured, he will not go unpunished.

**6** By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iniquity is atoned for, and by the fear of the LORD one turns away from evil.

**7** When a man's ways please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to be at peace with him.

**8** Better is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great revenues with injustice.

**9** The heart of man plans his way, but the LORD establishes his steps.

**18**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19** It is better to be of a lowly spirit with the poor than to divide the spoil with the proud.

**20** Whoever gives thought to the word will discover good, and blessed is he who trusts in the LOR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우리 삶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is promised when we entrust all our plans with God? (16:3)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What are the results of a proud mind and haughty spirit? (16:18)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계획한 대로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the failure of our plan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3월 이후부터의 계획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대대적인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예배 후에 식사를 통한 교제가 중단되었으며, 소그룹이나 야외 행사들, 그리고 단기선교 계획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 세대가 처음 겪는 팬데믹 앞에 인간은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우주에 위성을 보내고 화성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인류는 원시적이라 할만한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온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리턴(return) 할 것인가 아니면 침체(recession) 할 것인가의 추측 속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repent)입니다.

생태계를 돌보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시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고(5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 하였습니다(18절).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였기에 우리의 경영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3절).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2020년이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해였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 한 해였기 때문이고, 우리의 계획은 무산되어도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We have learned a lesson from COVID-19. It is the truth that our steps are determined by God though our ways are planned by our minds. Since March 2020, plans were either abandoned or drastically adjusted. No in-person worship service was allowed and fellowship lunch after service was halted. Small group gatherings, outdoor activities, and plans for short term mission trips were cancelled. Facing a pandemic for the first time, the current generation was completely powerless. The current generation has sent satellites to outer space and is ready to send astronauts to Mars but we have succumbed to a primitive virus. The whole world came to a screeching halt. We are faced with two choices: one is to return to the past and the other is to fall into recession. But there is something that we must not forget. It is to "repent."

We must repent of our sin of damaging the ecosystem by our relentless development. More than anything, we must repent of our sin of pride that caused us to act as if we were the master of our lives. The Lord detests all the proud of heart (16:5) and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16:18). Did our plans fail because our pride did not completely entrust God with all the plans of our lives? (16:3) Year 2020 was a painful year for all of us and it was a year when most of our plans were thwarted but we are grateful to God. Because it was a year that clearly taught us it is God not us who determines our steps, and though our plans were thwarted, we believe that the deeper plans of God were fulfill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약으로





# 10

##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

성경본문 Scripture

---

주요내용 Outline

---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교회의 본질 회복의 기회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NY)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 문이 닫히는 사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경험이고, 예배당 문이 열려도 여러 면에서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교회는 필수적인 곳이고, 고난과 환란의 때일수록 교회만큼은 열려져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얻어야 하는 곳이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필수적인 곳인데,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교회의 ‘필수적인 것’(essential)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교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 중심에서 디아스포라 2,000년 온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 회당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 신앙의 핵심은 안식일 기도로 시작하는 식사와 14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암송함으로 ‘말씀의 아들, 딸’이 되는 신앙의 성인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스테반 순교 이후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역사, 이방 땅 안디옥에서 사도바울이 제자를 훈련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도 개혁을 위해 내세운 구호가 ‘Ad Fontes’(Back to the Sources) ‘근원으로 돌아가자’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Sola Scriptura’(오직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교회 본질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인들이 어디에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때에 교회는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 성경구절 50개와 찬송가 50개를 선



정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성도들이 성경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위해서입니다.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성경구절을 외우고 찬송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 예배당이 다시 열렸을 때 찬송가가 없어도 PPT 자막을 올리지 않아도 찬송을 외워서 부를 수 있고, 성경도 암송으로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평신도 신앙운동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연회나 총회 회의 때 투표를 평신도와 목사 한 표씩 동등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의 평신도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의 '일'을 신학공부를 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평신도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교단의 목사들이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것 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 '성직'을 구별하려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전문가들이 교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의 기득권을 독점합니다. 이렇게 현장 중심이 아니라 행정중심 제도적 교회로서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흠어져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었고, 초대 감리교운동 '순회사역자'(circuit rider)들은 '홀로 해내는 개척정신'(independent frontier mentality)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을 암송하듯 신앙의 핵심을 암송하고 영적전투 현장에 투입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하여 감리교운동이 불일 듯 부흥했던 원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교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생활화하다가 주일이 되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축제로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의 역할은 세상에 나가 영적전투에 임해야 할 교인들에게 최고의 영적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회복의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도 변하겠지만, 교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감리교운동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고난주일
28		3-4	28		주일	28		63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김응선(총회 공보부), 오천의(총회 공보부)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호, 류재덕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김다위 목사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Kansas, KS)

#### ❖ 주일 칼럼

정영희 목사 (드림교회, CA)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NY)

이창민 목사 (LA연합감리교회, CA)

이철구 목사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김세환 목사 (아틀란타한인교회, G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